

# 일간지 담론분석을 통해 본 한국 개신교 :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와 개신교의 관계성 성찰\*

옥성삼(감리교신학대학교 / 객원교수)

accts@naver.com

---

## 한글 초록

---

일간지 사설이 생산하는 종교 담론은 종교의 '신앙 정체성' 담론이기보다는 '사회 관계성'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사회 관계성 담론으로서 개신교 담론에 대한 이해는 한국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사회 구조적 변동을 배경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생산한 공공 담론은 사회현실 자체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전제로 일정한 가치와 잣대로 해석된 현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일간지가 생산한 개신교 담론을 구성주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특히 사회 구조적 변동으로써 한국적 상황을 세계화(Globalization)론으로 바라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간지 사설의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을 통하여 21세기 한국 상황에서 사회와 개신교의 관계성을 성찰하는 것이다. 사회언론이 생산하는 한국 개신교 담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은 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을 위한 기초 작업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역할과도 연결된다. 최근 18년간(2004~2021) 일간지 사설이 생산한 한국 개신교 담론을 분석한 결과 한국사 회와 한국 개신교의 상호충돌적 만남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 본 논문은 2013년 10월 제17회 소망신학포럼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기초로, 최근 8년간(2013.07~2021.12) 자료를 추가하여 통합적으로 재분석한 연구이다.

《 주제어 》

세계화, 담론분석, 일간지, 구성주의, 한국 개신교

## I. 들어가는 말

미디어와 종교가 독립적인 영역을 넘어 상호교차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박진규, 2008; Hoover & Lundby, 1997). 이런 추세는 세속화 이론가들의 전망과 달리 1980년대 세계적인 종교부흥을 통해 종교가 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으로 부상하면서라고 본다(Berger, 1999, 1-9; Carey, 2002, 1-3). 미디어와 종교 간의 교차점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현대적 상황에서 미디어는 종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디어가 종교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언론의 비판과 감시 그리고 문화 전수 역할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이선영, 2011, 662-663).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은 주로 종교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시사 저널리즘 형태로 나타난다(박진규, 2008, 112).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종교를 중요한 현상으로 보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종교의 급성장 때문이며, 이 시기부터 일간지 문화면에서 주 1회 정기적인 종교면이 보도되기 시작했다(이선영, 2011, 662).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와 사회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한국 개신교가 사회 구조적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에 대한 담론은 종교 자체가 가진 '신앙 정체성' 담론이기보다는 '사회 관계성'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 관계성 담론으로서 개신교 담론에 대한 이해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사회 구조적 변동을 배경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 구조적 변동으로써 21세기 한국적 상황을 세계화(Globalization)론으로 바라본다. 또한, 저널리즘 미디어는 그

특성상 고정된 시각을 가졌다기보다는 시공간적인 특수성을 전제한다는 구성주의 입장을 견지한다. 구성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언론에 의해 생산된 공공 담론은 사회현실 자체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일정한 가치와 잣대로 해석된 현실을 보여준다(허윤철·박원홍, 2010, 564-566).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현실이 재구성된다고 보았다. 기틀린(Gitlin, 1980, 7)은 언론의 인식, 해석, 선택, 강조, 배제 등으로 재구성된 현실이 지속적인 재해석 과정을 통하여 매체 담론이 조직화된다고 하였다. 언론 보도 중 특히 일간지 사설은 중요한 이슈의 선택과 해석, 해결방안과 정책 제안, 가치 판단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창출하는 기능을 한다(채영택·최외출, 2012, 252-253). 근래 저널리즘 연구에서 언론의 정파적 성향에 따른 담론의 차이와 특성을 도출하는 사례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보수 언론으로 분류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과 진보언론으로 분류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에 대한 대립구조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김효진, 2008, 1-5; 정재철, 2002, 322-323). 사설은 스트레이트 기사와 달리 신문사의 의견과 주장이 뚜렷하게 제시되기에 특정 담론에 대한 분석에 효과적이다(변동현·박흥수·김영기, 2000, 191). 또한, 사설은 담론이 조직화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와 교회의 관계성을 성찰하기에 적합한 분석대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 합리성과 사회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한다면(박진규, 2009, 313-314; 황우선·김성해, 2015, 85-88). 개신교는 사회변화 속에서 신앙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성육신적 소통과 사명을 추구한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물”이라는 칼 바르트의 말은 성경과 함께 신문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도구임을 강조한다(이성희, 2021, 22-23). 오늘날 교회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만나고 세상 또한 미디어를 통해 교회를 이해한다.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증가하는 시대 크리스천 청소년이 사회와 소통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성교육과 함께 뉴스를 보는 기본기와 성경적 가치관으로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상진(2011)은 교회, 학교, 가정, 사회 등과 함께 미디어를 중요한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장으로 제시했고, 김효숙(2013)은 기독교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와 실천적 사례를 제시했으며, 김정준(2016)은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4가지 영성교육의 방향 중 하나로 미디어 리더십 영성교육을 제시했다. 사회언론이 생산하는 한국 개신교 담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은 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을 위한 기초 작업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역할과도 연결된다. 언론 담론으로 바라보는 한국 개신교는 한국교회의 개혁성(reforming), 본질성(adfontes), 개방성(adiaphora) 등이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성찰하는 문제이며(옥성삼, 2021),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현장 중 하나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구조변동으로써 세계화

세계화(Globalization)는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가 일상화’된 현실을 가져온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등에서 경험하듯이 한 지역의 변화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역동적 사회를 가속화시킨다. 20세기 말에 본격화된 세계화는 경제나 문화 현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의 구조적 변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에 의하면 세계화는 근대성(modernity)에 내포된 역동성의 결과이다(최석호, 2004, 129). 근대성이 가진 역동성은 결국 ‘일상화된 변화’를 초래하면서 삶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근대성은 “성찰성”, “시공간 원격화”, “장소 귀속성 탈피” 등 세 가지 역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최석호 2003, 29-30; Giddens, 1990, 1-79). 근대성의 세 가지 메커니즘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전 세계로 확장시

키고, 각 지역과 전 세계를 상호교차 시킨다(최석호, 2004; Giddens, 1990; 1999; Tucker, 1999). 세계화의 특징적 양상으로는 첫째 국경을 넘는 교류의 활성화와 상호의존성의 확장을 통해 ‘지구촌’ 사회를 현실화한다. 둘째 세계가 단일 사회 및 단일 시장화됨으로 지역별 보호 장벽은 무력화되고, 무한에 가까운 글로벌 경쟁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 양극화(social polarization)’를 수반한다(조미영, 2020, 382-383). 셋째 세계화는 일방향이 아닌 상호작용적으로 진행되기에 지역별 다양성은 증가하되 차이점은 줄어든다(최석호, 2005, 37-38). 이를 로버트슨은 ‘글로벌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라고 한다(Robertson, 1992, 164-181). 일례로 세계가 주목하는 BTS의 K-POP은 한국 고유의 특성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댄스와 랩, 영어와 뮤직비디오, 글로벌 팬덤(ARMY) 현상이라는 지구적 표준(Global Standard) 양식을 함께 지녔다. 넷째 ‘탈중심화(decentring)’이다. 중심적 힘과 가치만이 아닌 주변적 요소가 중심을 압도하기도 하며, 일방향의 권위적 ‘차별문화’에서 상호소통의 ‘차이문화’로 변화한다. 변화가 일상화된 세계화는 전통 사회의 ‘경험적 지식’과 산업사회의 ‘전문가 지식’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찰적 지식(Reflexive knowledge)’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Globalization)론은 변화가 일상화된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개신교와 사회의 만남을 이해하는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 2. 내용분석과 담론분석

차배근에 의하면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이란 메시지의 특정한 특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누가·왜·무엇을·어떻게·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추리하는 문헌적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차배근, 1990, 381-382). 베를슨에 의하면 “내용분석이란 커뮤니케이션의 현재적 내용(manifest content)을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으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다”(Berelson, 1952, 18). 반면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은

분석하는 텍스트들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지며 사회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담론분석은 내용분석에서 간과되기 쉬운 특정 사안의 정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장점이 있다. 담론(談論)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체험과 인식의 특정한 틀과 방식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지식 및 정보 등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정세적 진리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김윤철, 1999, 23-40). 일간지 사설에 대한 담론분석은 내용분석과 병행될 때 연구의 객관성과 함께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

### 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 이원규(1993)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1948년부터 1983년 12월까지 내용분석을 하였다. 이원규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장흥근(2001)은 1990년대 종교 관련 기사에 대해 내용분석을 하였다. 이원규와 장흥근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2000년대를 대상으로 한 정효선(2010)의 연구 그리고 2010년대를 대상으로 한 이현주(2021)의 연구는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개신교 담론의 사회적 맥락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디어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박진규(2008)는 미디어의 종교 담론 생산에 대한 문화 엘리트의 담론적 정당화를 5가지- 감시와 비판기능, 종교의 사회성, 다원주의 사회 가치, 사회의 반영, 글로벌 미디어를 통한 선행경험-로 분석하여 종교와 미디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어서 박진규(2009)는 미디어와 종교 관련 선행연구를 개괄하여 종교와 미디어의 교차점은 7가지 유형화로 정리하여 한국적 상황에서 향후 연구영역과 주제를 ‘제작 및 생산, 텍스트, 수용 및 소비’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이선영(2011)과 황우선·김성해(2015)는 언론이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재분석했다. 이선영(2011)은 미디어가 종교 교리를 보도할 경우 이성적 기준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종

교 영역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황우선·김성해(2015)는 2007년 아프간 선교단체의 피랍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도출하고,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편적 가치와 공동체 가치관 등의 관점에서 도출된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재성찰했다.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연구로는 한국 개신교의 위기를 패러다임 문제로 분석한 이학준(2011)의 연구 그리고 세계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동의 관점을 제시한 최석호·김보영·민웅기(2009)와 육성삼(2013)의 연구가 있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일간지 사설이 생산한 한국 개신교 담론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 관계성 담론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8년간 일간지 사설에 대하여 내용분석 및 담론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4가지 일간지를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간지 사설이 생산한 21세기 한국 개신교 담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일간지 사설의 개신교 담론에는 어떤 성향을 담고 있는가?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차이가 있는가?(하위주제)

연구문제 3: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21세기 한국 개신교 지배담론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한국 개신교 담론의 비판 잣대는 무엇인가?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하위주제)

연구문제 5: 사회관계성 담론으로서 한국 개신교 담론의 특성은 무엇인가?

## 2.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04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8년 동안의 일간지 사설을 대상으로 했다.

1차 분석은 2013년 7월~8월(2004.01~2013.06). 2차 분석은 2021년 3월~4월(2013.07~2021.12) 두 차례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신문 기사를 추출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아카이브 웹사이트(archive.chosun.com)'를,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bigkinds.or.kr)'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곳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모집단 접근법을 바탕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검색은 각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제목, 본문, 주제어에 한 번이라도 '기독교', '개신교', '교회', '목사', '예배' 등의 단어가 들어간 사설을 검색하였다. 1차 분석에는 총 100건의 사설이 채택되었고, 2차 분석에는 총 154건의 사설이 채택되었다. 일간지별로 구분하면 1, 2차 분석에서 <조선일보> 71건, <동아일보>는 75건, <한겨레신문> 124건, <경향신문> 144건 등 총 414건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선일보> 42건, <동아일보> 43건, <한겨레신문> 90건, <경향신문> 79건 등 합계 254건(61.4%)의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목과 내용 중 '기독교', '개신교', '교회', '목사',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설을 표본추출 하였다. 둘째 개신교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사설이라 해도 단순 언급의 경우 제외시켰다. 셋째 개신교와 무관한 주제의



사설이라도 개신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이나 사례가 제시된 사설은 포함시켰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 절차와 방법은 2차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빅카인즈의 경우 기존 카인즈(kinds.or.kr)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추가하여 2016년 4월 19일 서비스를 개편했지만, 본 논문의 담론분석에 영향을 주는 변화는 아니다. 먼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개신교 관련 사설 건수, 빈도, 유형별 분포도, 보도 성향 등을 살펴보았다. 사설의 제목과 내용을 출력하여 면밀하게 속독 및 검토한 결과 주제 유목으로 대부분류는 ‘교회’와 ‘사회’ 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회’는 교회 본연의 신앙 활동과 관련된 영역이며, ‘사회’는 교회, 크리스천, 목회자 등이 사회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 전반(정치·경제·사회·문화)과 관련된 영역이다. 세부 유목으로 ‘교회’에는 ‘교회개혁’, ‘교회문제’, ‘성직자’, ‘해외선교’, ‘신앙행태’ 등 5개로 구분하였다. ‘사회’ 영역의 세부 유목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전체 사설의 세부 유목을 10가지로 제시하였다. 세부 유목별 사설의 비판 잣대는 윤리성, 합리성, 사회적 가치, 보편적 가치 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비판 잣대 4가지 유목의 경우 ‘선행’과 같이 다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호배타적, 독립적 분류 원칙에 일부 상치되는 문제가 있지만, 각 유목의 범위를 규정하고 상위와 하위 등의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념의 잣대를 우선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종교사학과 사학법 개정 문제는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 상호존중과 이성적 판단 등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헌법과 법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핵심적인 잣대로 보았다. 또한, 각 사설의 논거에서 여러 가지 비판 잣대가 중복되어 사용되는 사설의 경우 핵심 주제와 개신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에 사용된 중심 잣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사실 성향 분류는 보도 태도에 많이 사용하는 ‘긍정, 부정, 중립’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 연도별 사실 현황

연도별 사실의 현황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연도별 사실 현황1 (2004년 1월~2013년 6월)

항목 연도	주요사실 주제	핵심이슈
2004	- 시국선언(정부정책전반) - 개신교NGO 출범, 이라크 파병(김진홍) - 종교사학, 구국기도회, 한기총시위, 서울시봉헌, 색깔론 - 종교사학, 서울시봉헌	종교사학 (종교교육) 서울시봉헌
2005	*없음 - 목사의 기독교비판 - 부동산투기 회개, 미국복음주의	.
2006	- 아프간 종교행사 *없음 - 종교사학, 다빈치코드, 강원홍목사 - 사학법 재개정, 목회세습, 김홍도목사, 다빈치코드, 미국교회 출산장려운동	사학법재개정
2007	- 아프간 선교 - 아프간 선교, 사학법 재개정 - 아프간 선교 - 이랜드노조, 종교사학, 아프간 선교	아프간 선교 종교사학
2008	- 종교간 소통 - 중동문화원, 대통령 종교편향, 정부 종교편향 - 중동문화원, 정부의 종교편향, 대통령의 종교편향 - 시국성명(대북정책), 대통령종교편향, 한기총 대통령찬양	대통령종교 편향

항목 연도	주요사실 주제	핵심이슈
2009	- WCC *없음 *없음 - 종교간 평화공존	
2010	- 김해성 목사(미답) - 한상렬목사 방북, 박상증 목사(친북세력 비판) - 봉은사 땅 밟기 *없음	봉은사땅밟기
2011	*없음 - 이슬람채권법 - 대형교회 정치선동, 정치교회 선관위 감시, 교회매매, 목사설교방언(타국참사), 대통령 합심기도, 이슬람채권법 - 대형교회 정치개입, 테러와 근본주의신앙, 목사직 매매, 구멍 뚫린 헌금봉투, 한기총돈선거, 이슬람채권법	이슬람채권법 대형교회정치 개입 대통령합심 기도 한기총돈선거
2012	- 교단법 개정, 교단총회 파행, 목회세습, 목회자납세운동 - 진화론 학교교육 - 미국근본주의기독교, 진화론과 창조론, 성직자 소득과세 - 교단법 개정, 목회세습, 교회철탈철거, 종교인 과세	교단법 개정 진화론 학교 교육 성직자 납세
2013 (상반기)	*없음 - 차별금지법, 조용기 목사 부자와 교회사유화 *없음	차별금지법 (동성애)

\* 연도별 점선 위는 조선, 동아 순이며, 점선 아래는 한겨레, 경향 순

<표 2> 연도별 사실 현황2 (2013년 1월 ~ 2021년 12월)

항목 연도	주요사실 주제	핵심이슈
2013 (하반기)	- 교회세습 - 종교인 과세 - (없음)	교회세습 종교인과세
2014	- 세월호와 구원파, 이석기 - 성지순례테러, 세월호와 구원파, 문창극 인선 - 성지순례테러, 박상증, 문창극, 이인호, 동성애, 종교인과세 - 성지순례테러, 박상증, 문창극, 김성주, 애기봉 점등	성지순례 테러 세월호와 구원파 극우 기독교인 인선

항목 연도	주요사실 주제	핵심이슈
2015	- 통일교 세무조사, 세월호, 세금납부결의(기장) - 민노총집회(북한지령 목사) - 3.1운동, 황교안, 애기봉 등탑 - 황교안, 종교지배층, 교회변칙세습	극우 기독교인 교회변칙세습
2016	- (없음) - 목사 딸 폭행치사 - 목사 딸 폭행치사, 종교인 과세, 명성교회 세습 - 목사 딸 폭행치사, 최성규	목사 딸폭행치사 종교인 과세 명성교회 세습
2017	- (없음) - 명성교회 세습, 종교인 과세 - 종교인 과세	명성교회세습 종교인 과세
2018	- (없음) - (없음) - 이재택 목사 그루밍 성폭력	목사 그루밍성폭력
2019	- (없음) - 종교인과세,전광훈막말, 명성교회세습, 김진표 - 종교인과세, 북한교회지원,전광훈(한기총)막말, 황교안	종교인 과세 전광훈(한기총) 막말 명성교회 세습
2020	- 대구신천지,코로나사태,전광훈(사랑제일,한기총,집회) - 대구신천지,코로나사태,전광훈(사랑제일,한기총,집회) - 대구신천지,코로나사태,전광훈(집회,구속,사랑제일교회, 한기총), 황교안 가짜뉴스, 동성애, 이동환 목사 - 차별금지법, 대구신천지, 코로나사태, 전광훈(집회,사랑 제일교회,막말), 인터콥, 동성애, 이동환 목사	대구 신천지 코로나 사태 전광훈과사랑제일 교회사태 동성애와이동환목 사
2021	- (없음) - (없음) - 인터콥집단감염,IM선교회집단감염,오미크론(목사거짓말)	인터콥과 IM선교회집단감 염

\* 연도별 점선 위는 조선, 동아 순이며, 점선 아래는 한겨레, 경향 순

2004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대 일간지 사실빈도가 높은 시기는 ① 2007~2008, ② 2011~2012, ③ 2014, ④ 2020 등 4가지이다. 빈도가 높은 시기별로 주요 담론은 ① 아프간 선교, 대통령 종교 편향, ② 대형교회 정치개입, 교회 문제 ③ 세월호와 구원파, 보수 기독교인, 종교인 과세, ④ 코로나 사태,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교회 세습, 동성애 등이다.

〈표 3〉 연도별 · 신문사별 사설 건수(2004년 1월~2021년 12월)

연도 신문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조선	1	.	1	5	1	1	2	1	5	1	3	3	.	.	.	.	18	.	42
동아	2	.	.	4	5	.	2	3	1	1	5	1	2	.	.	.	17	.	43
한겨레	7	1	4	3	6	.	1	6	3	3	13	3	3	3	.	4	28	2	90
경향	2	2	7	7	3	1	.	6	4	.	6	3	2	3	1	4	25	3	79
(계)	12	3	12	19	15	2	5	16	13	5	27	10	7	6	1	8	88	5	254

사설의 빈도수를 일간지 성향으로 구분하면 진보 성향의 한겨레신문 90개와 경향신문 79개 등이며,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42개와 동아일보 43개 등이다. 사설 빈도수는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 신문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이 나타났다. 사설의 빈도를 정권별로 구분하면 노무현(2004~2007년) 46개, 이명박(2008~2012년) 51개, 박근혜(2013~2016년) 55개, 문재인(2017~2021년) 108개 등이다.

2020년의 사설빈도가 폭증한 것은 코로나19 및 전광훈 목사 관련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연도별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해는 2007년(19개), 2011년(16개), 2014년(27개), 2020년(88개) 등이며, 사설의 빈도수만으로 보면 신문 성향별로 발생 시기의 차이는 크지 않다. 문재인 정권 시기 코로나19 변수를 제외하면 정권별 발생 빈도의 차이 역시 미미하다. 지난 18년간 시기별 사설빈도의 유의미한 특성은 정권 전반기보다 정권 후반기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2. 사설의 유목분류

사설에 대한 주제유목의 분류는 먼저 ‘교회’와 ‘사회’ 두 영역으로 대분류하였다. 주제유목의 대분류 기준으로 교회 유목은 주된 내용과 관점이 교회 본연의 신앙 활동 그리고 교회 내부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교회의 조직, 신

양, 신앙 활동, 교회 행정 등과 관련한다. 대분류의 사회 유목은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각 영역별 이슈들을 담고 있다.

〈표 4〉 사설의 유목분류

대분류	세목분류	기간	주요사설 내용
교회	교회개혁 성경가치, 개혁적활동	04.01~ 13.06	교단법 개정(세습방지), 목회세습 회개 부동산 투기 회개, 십자가 철탑 철거 등
		13.07~ 21.12	대형교회 북한지원
	교회문제 교회및종교 문제들	04.01~ 13.06	목회세습,교단법개정,목사직매매,교회매매, 한기총돈선거, 사유화및조세포탈, 헌금분투
		13.07~ 21.12	명성교회 부자세습, 종교포럼, 종교지배층,
	성직자 목회자사고 사건,평가	04.01~ 13.06	김홍도목사(유죄판결),대형교회목사(망언), 김진홍목사(이라크파병설교),강원릉목사(타계)
		13.07~ 21.12	이재목성폭력, 목사그루밍성폭력,
해외선교 해외선교 활동	04.01~ 13.06	여권법개정, 해외선교형태 아프간선교문제, 미국근본주의신앙	
	13.07~ 21.12	.	
신앙행태 교회내신앙 노선,색깔	04.01~ 13.06	WCC, 종교간소통, 봉은사땅बा기, 테러와극단주의신앙, 대통령의합심기도	
	13.07~ 21.12	성지순례, 애기봉집등, 이동환목사징계, 목사 딸 폭행치사, 현장예배	
사회	정치 정부,법, 선거,공 직자,집회, 정치활동	04.01~ 13.06	시국성명,친북세력,종교편향,정부종교편향,서울시 봉헌,대형교회정치개입,색깔론,미국보수주의신앙
		13.07~ 21.12	테러,문창극,박상중,이인호,황교안,김진표,교회정치 화,통일교세무조사, 전광훈(한기총,사랑제일)집회/ 막말
	경제 경제활동, 세금 등	04.01~ 13.06	목회자 세금납부운동, 이슬람채권법 성직자 과세,이랜드노조
		13.07~ 21.12	종교인 과세, 기장 세금납부결의
사회 과학,생명, 환경,시민 운동,사건, 보건,전염병	04.01~ 13.06	출산장려운동, 개신교NGO 출범, 차별금지법	
	13.07~ 21.12	세월호와유병언,차별금지법,3.1운동,이동환,대구신 천지,코로나사태,전광훈(집회/코로나),인터럽,IM선 교회, 사랑제일	

대분류	세목분류	기간	주요 사실 내용
사회	문화 방송,영화, 표현자유	04.01~ 13.06	중동문화원, 다빈치코드, 한기총 시위(방송)
		13.07~ 21.12	애기봉 성탄트리
	교육 학교,종교교육, 사학법	04.01~ 13.06	사학법 재개정, 진화론 학교교육, 종교사학, 종교교육
		13.07~ 21.12	.

교회 관련 세부 유목은 교회개혁, 교회 문제, 성직자, 해외 선교, 신앙행태 등 5가지 그리고 사회 관련 세부 유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5가지로 분류하여 총 10가지 세부 유목으로 유형화하였다. 일간지 사실을 통해 생산된 개신교 담론의 유목은 한 두 가지에 집중되어 나타나지 않고 각 유목 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부유목별 담론은 〈표 4〉와 같다.

〈표 5〉 유목분류별 · 신문별 사실 수

대분류	세목분류	사실 수						합계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계	%	
교회	교회개혁	3	.	.	4	7	2.7	62
	교회문제	2	.	6	7	15	5.9	
	성직자	1	1	2	2	6	2.4	
	해외선교	7	3	4	4	18	7.1	
	신앙행태	2	3	5	6	16	6.3	
사회	정치	7	11	29	20	67	26.4	192
	경제	2	4	6	7	19	7.5	
	사회	18	18	27	22	85	33.5	
	문화	.	1	5	1	7	2.7	
	교육	.	2	6	6	14	5.5	
계		42	43	90	79	254	100.0	254

사설의 유목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대분류는 교회 본연의 활동과 관련된 사설이 62개(24.4%), 사회와 관련된 사설이 192개(75.6%)로 사회와 관련된 사설이 약 3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신문사의 성향으로 보면 보수 성향의 신문은 교회 영역의 사설이 22개(25.9%), 사회 관련 사설이 63개(74.1%)이며, 진보 성향의 신문은 교회 영역의 사설이 40개(23.7%), 사회 관련 사설이 129개(76.3%)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간지 사설은 교회 본연의 활동보다는 교회의 사회 관련된 활동에 훨씬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회 관계성’ 담론의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일간지 사설의 관심은 신문사 성향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18년간 개신교 관련 많이 다루어진 사설의 세부분류 순서는 사회(33.5%), 정치(26.4%), 경제(7.5%), 해외 선교(7.1%), 신앙행태(6.3%), 교회 문제(5.9%), 교육(5.5%), 교회개혁(2.7%), 문화(2.7%), 성직자(2.4%) 등이다. <조선일보>에서 빈도가 높은 세부 유목은 사회 18개, 정치 7개, 해외 선교 7개 등이다. <동아일보>에서 빈도가 높은 세부 유목은 사회 18개, 정치 14개 등이다. 특징적으로는 세부 유목 중 교회개혁과 교회 문제에 대한 사설이 없다. <한겨레신문>은 교회 17개(18.9%)와 사회 73(81.1%)등으로 교회 본연의 활동보다는 사회 관련 사설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향신문>의 빈도가 높은 세부 유목은 사회 22개, 정치 20개, 교회 문제 7개, 경제 7개 등이다. 특징적으로는 10가지 세부 유목 모두에 대하여 사설이 있다.

### 3. 신문사별 사설 성향

4대 일간지의 개신교 관련 사설 방향은 긍정 18개(7.1%), 부정 197개(77.6%), 중립 39개(15.3%)로 전체적으로 부정적 성향의 사설이 절대적이다. 사설의 성향은 일간지의 성향별 차이보다는, 신문사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긍정 성향(21.4%)과 중립 성향(31.0%)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부정 성향(47.6%)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보수 성향의 <동아일보> 등은 부정적 성향이 매우 높고 긍정 성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긍정 성향이 2.3%로 가장 낮지만, 중립성 향이 18.6%로 진보 성향의 신문에 비해 중립 성향의 비율이 높고 부정 성향 비율은 좀 낮게 나타났다. 진보 성향 중에서 <한겨레신문>은 부정 성향이 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립 성향이 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성향이 명확한 대조를 보이며,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표 6> 신문사별 사설 성향

성향 신문사	긍정		부정		중립		계	
	사설	%	사설	%	사설	%	사설	%
조선일보	9	21.4	20	47.6	13	31.0	42	16.6
동아일보	1	2.3	34	79.1	8	18.6	43	16.9
한겨레	3	3.3	80	88.9	7	7.8	90	35.4
경향신문	5	6.3	63	79.8	11	13.9	79	31.1
계	18	7.1	197	77.6	39	15.3	254	100.0

<표 7> 세부유목별 신문사별 사설의 방향

대분류	세목분류	총사설	사설 성향	사설	비율 (%)	신문사별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교회	교회개혁	7	긍정	6	85.7	3	.	.	3
			부정	1	14.3	.	.	.	1
			중립	.	0	.	.	.	.
	교회문제	15	긍정	.	0	.	.	.	.
			부정	14	93.3	2	.	6	6
			중립	1	6.7	.	.	.	1

대분류	세목분류	총사설	사설 성향	사설	비율 (%)	신문사별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교회	성직자	6	긍정	3	50.0	1	1	1	.
			부정	3	50.0	.	.	1	2
			중립	.	.	.	.	.	.
	해외선교	18	긍정	.	0	.	.	.	.
			부정	16	88.9	6	3	4	3
			중립	2	11.1	1	.	.	1
	신앙행태	16	긍정	1	6.3	1	.	.	.
			부정	14	87.5	.	3	5	6
			중립	1	6.2	1	.	.	.
사회	정치	67	긍정	3	4.5	.	2	.	1
			부정	56	83.6	4	7	28	17
			중립	8	11.9	3	2	1	2
	경제	19	긍정	2	10.5	2	.	.	.
			부정	13	68.4	.	3	6	4
			중립	4	21.1	.	1	.	3
	사회	85	긍정	5	5.9	2	1	1	1
			부정	62	72.9	8	16	21	17
			중립	18	21.2	8	1	5	4
	문화	7	긍정	1	14.3	.	.	1	.
			부정	6	85.7	.	1	4	1
			중립	.	0	.	.	.	.
	교육	14	긍정	.	0	.	.	.	.
			부정	12	85.7	.	1	5	6
			중립	2	14.3	.	1	1	.
합계		232		232	100.0	37	43	84	68

#### 4. 개신교 담론의 비판 잣대

4대 일간지 개신교 관련 사설의 비판은 윤리성, 합리성, 사회적 가치, 보편적 가치 등 4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사설에 나타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인식과 비판의 기준은 사회적 가치가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합리성(합리주의) 기준에 따른 비판이 34%이며, 윤리성과 보편적 가치는 각각 17%와 6%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와 다른 3개 신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선일보는 합리성이 가장 중요한 비판 잣대이고,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윤리성, 보편적 가치 순서이다. 다른 3개 신문은 모두 사회적 가치, 합리성, 윤리성, 보편적 가치 순으로 사회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비판 잣대로 나타났다. 사실의 73%가 부정적 성향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개신교는 흔히 회자되는 윤리성 문제보다는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비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사설의 비판 잣대

비판 기준	세부 내용
윤리성	사유화, 기득권, 배금주의, 성적타락, 교회세습 사기, 살인, 폭행, 무고, 배임, 횡령,
합리성	과학적 사고, 이성적 판단, 상식, 논리 공정성, 형평성(중립성), 객관성
사회적가치	헌법질서, 준법,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교분리, 다종교사회 민족성, 역사성, 주권, 다문화사회, 공공질서, 공익
보편적가치	인권, 선행, 자유, 평화, 생명, 평등 환경, 공공

<표 9> 신문사별 · 비판 기준별 사설 수

신문사 비판기준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계	비율(%)
윤리성	11	6	14	13	44	17.3
합리성	16	12	15	13	56	22.0
사회적가치	13	24	54	45	136	53.6
보편적가치	2	1	7	8	18	7.1
계	42	43	90	79	254	100

〈표 10〉 비판 준거별 신문사별 사설내용

신문 비판준거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윤리성	교단법개정 총회파행 세습회개, 목회자납세운동		조용기목사 부자비리 교회매매/ 구국기도회 종교사학	교단법 개정 세습회개/헌금봉투 부동산투기 목사직 매매 김홍도목사유죄
	교회개혁 (세습금지)	구원파와 유병언 대구 신천지 신천지 방역방해 교회 집단감염	명성교회부자세습 종교인과세/대구신천지 황교안/전광훈가짜뉴스 오미크론 목사 거짓말	종교지배층 교회 변칙세습 성직자그루밍 성폭력 대구 신천지
합리성	여권법개정 WCC 총회 아프간선교	진화론교육 이슬람채권법 중동문화원 아프간 선교	대통령종교편향 아프간선교/차별금지법 중동문화원/다빈치코드 이슬람채권법/색깔론 미국기독교근본주의 진화론/봉은사평방기	극단적 신앙 아프간선교 다빈치코드 이슬람채권법 십자가철탐철거
	대구신천지사태 코로나 사태	성지순례 테러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감염	박상증 임명 대형교회코로나남모론 이동환 목사 징계	성지순례 테러 문창극 보도 애기봉 트리점등 전목사막말 차별금지법 코로나 방역
사회적 가치	다종교사회 출산장려운동 시국선언	정부 종교편향 대통령 종교편향 사학법 재개정 친북세력 비판 이슬람채권법 개신교NGO 김진홍목사 설교	대형교회 정치선동 한기총집회(방송) 성직자 과세 종교사학 서울시봉헌 대통령 합심기도	대통령 종교편향 서울시봉헌 이랜드노조 대형교회 정치개입 시국성명/종교사학 사학법 재개정 목회세습 출산장려운동
	세월호와구원파 세금반부결의 코로나사태 전광훈집회/ 집단감염	종교인과세 문창극 발언 코로나 사태 교회 집단감염 부활절 현장예배 전광훈 집회/막말	문창극,박상증,이인호 황대표 종교편향 종교인과세/ 3.1운동 극우기독교인 코로나사태(감염,방역) 전광훈(집회/막말/ 감염) 사랑제일교회사태	박상증, 황교안 종교인 과세 극우 보수기독교 코로나사태교회대응 전광훈 집회/막말 사랑제일교회사태 인터콥/IM선교회

신문 비판준거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보편 적 가치	김해성목사미담		설교 망언 강원통 목사의 삶	종교간 소통 미국NCC 성명 미국기독교근본주의
	위안부쉼타지원	목사 딸 폭행 처사	성지순례 테러 성소수자(동성애) 목사 딸 폭행처사	김성주/동성애차별 목사딸 폭행처사 대형교회복한지원

### 5. 개신교 담론 주제별 유형 및 특징분석

2004년부터 2021년까지 254건의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개신교 담론의 내용분석을 토대로, 빈도수 중심으로는 9가지 주요 담론이 추출되었다. 9가지 주요 담론을 ‘교회’와 ‘사회’로 나누어 볼 때 교회 영역에는 공격적 선교 활동(17건), 목회자 일탈(12건), 교회 변칙세습(10건) 등이며, 사회영역은 코로나 사태(58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38건), 극우 기독교인(23건), 종교 편향(21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14건), 종교인 과세(13건) 등이다.

기틀린(1980)이 제시한 담론의 채택과 배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종교사학과 종교자유, 대형교회의 정치개입, 목회자 일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극우 기독교인, 종교 편향 등의 담론을 배제하였다. <동아일보>는 교회 변칙세습,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의 담론은 배제하였고, 극우 기독교인, 목회자 일탈, 종교인 과세 등의 담론은 제한적으로 채택했다. <한겨레신문>은 대구 신천지를 제외한 세월호와 구원파, 인터콥과 IM 선교회 등을 담론에서 배제시켰다. <경향신문>은 4곳 일간지 중 개신교 담론의 채택 범위가 가장 넓고, 주요 개신교 담론에서 배제하는 담론이 없으며, 담론별 채택 비중이 비교적 균형감 있게 나타났다.

일간지의 개신교 담론에 대한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개신교 담론은 교회 본연의 활동보다는 사회관계성 담론이 우세하다. 둘째 개신교 담론은 교회 영역에서는 ‘공격적 선교’와 ‘교회변칙세습’ 담론이, 사회영역에는 ‘코로나 사태’와 ‘극우 기독교인’ 담론이 핵심

담론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신교 담론은 보수 성향 언론보다는 진보 성향 언론이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넷째 개신교 담론의 성향은 부정적 담론이 강하다. 다섯째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신교 담론의 급증 및 부정 성향을 높였다. 여섯째 사설의 성향은 일간지의 성향별 차이보다는 신문사별 차이가 강하다. 특히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강한 대조를 보였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일곱째 담론의 채택과 배제 측면에서 보수 성향의 신문은 동성애, 교회 변칙세습 등의 담론을 배제하였고, 목회자 일탈, 극우 기독교인, 종교 편향 등의 담론 채택은 제한적이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신문은 보수 성향이 배제하거나 제한적으로 채택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대조를 이룬다. 여덟째 담론의 비판 기준은 사회적 가치와 합리성이 지배적인 비판 기준으로 나타났다.

## V. 나가는 말

일간지가 생산하는 종교 담론은 '신앙 정체성 담론'이 아닌 '사회 관계성 담론'이다.

사회 관계성 담론은 특정 시공간의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언론의 시각으로 매개된 현실이라는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관점과 연계되어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한국 개신교 담론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사회 구조적 변동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는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 개신교와 한국 사회의 관계성은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는 한국 근대화와 궤적을 함께하면서 제도권 종교 중에서 사회와 가장 밀접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한국 개신교는 구한말 전래 이후 1980년대 산업화 시기까지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민주화 시기를 거쳐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 시기에 사회와의 갈등 관계로 전환되었고, 21세기 들어서는 갈등이 강화되는 경향이다. 21세

기 들어선 한국 개신교는 마이너스 성장의 경험과 교회 안팎의 여러 도전에 직면하지만, 사회 구조적 변동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사회와 갈등적 관계가 확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8년간 일간지 사설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 한국 개신교 담론의 몇 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신교 담론을 빈도순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극우 기독교인, 종교 편향, 공격적 선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목회자 일탈, 교회 변칙세습 등으로 나타났다. 빈도가 높았던 시기별 담론으로는 1) 2007~2008년 아프칸 선교, 대통령 종교 편향, 2) 2011~2012년 대형교회 정치개입, 교회 문제, 3) 2014년 세월호와 구원파, 보수 기독교인 인선, 종교인 과세, 4) 2020년 코로나 사태,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교회 세습, 동성애 등이다. 둘째, 핵심 담론으로 교회 영역에서는 ‘공격적 선교’와 ‘교회 변칙세습’ 담론이, 사회영역에는 ‘코로나 사태’와 ‘극우 기독교인’ 담론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회 본연의 활동보다는 사회 관계성 담론이 우세하다. 넷째, 개신교 담론은 보수 성향 언론보다는 진보 성향에서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섯째, 개신교 담론은 대부분 부정적 담론이다. 여섯째,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신교 담론의 급증과 함께 부정 성향을 높였다. 일곱째, 개신교 담론의 성향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강한 대조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여덟째, 담론의 채택과 배제 측면에서 보수 성향의 신문은 동성애, 교회 변칙세습 담론을 배제하였고, 목회자 일탈, 극우 기독교인, 종교 편향 등은 제한적으로 채택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신문은 보수 성향이 배제하거나 제한적으로 채택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대조를 보였다. 아홉째, 담론의 비판 기준은 사회적 가치와 합리성이 지배적인 비판 기준으로 나타났다.

일간지가 생산한 개신교 담론의 분석적 고찰을 근거로 보면 한국 개신교는 세계화라는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와의 능동적인 만남 및 합리적 소통에 실패하고 반사회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로 비판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 관계성 담론으로서 한국 개신교 담론의 생산적 전환을 위해서는 성서적 가치에 기초한 교회의 정체성 회복 운동 그리고 사회변동에 대한 성육신적 소통과 통전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증가하는 시대 기독교교육 현장으로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언론이 생산한 한국 개신교 담론을 분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뉴스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사례로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간지 담론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한국 개신교의 만남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18년간의 종단적 분석에서 일간지 네 곳의 사설을 대상으로 했다는 면에서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교회와 사회의 관계성 담론에 관한 발전적 연구로 '세상 문화에 대한 교회의 변혁적 책임'을 넘어서 교회의 공공성 측면에서 교회와 사회의 '상호 변혁' 개념에 기초한(김승호, 2019, 399-401; 옥성삼, 2019) 다학제적 성찰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김승호 (2019). 한국교회의 문화 이해 : 문화신학, 문화선교, 문화목회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4, 399-401
- [Kim, S. H. (2019).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hurch: Focusing on the Concepts of Cultural Theology, Cultural Mission, and Cultural Ministry. *Theology and Practice*, 64, 399-401.]
- 김윤철 (1999). 새로운 '성장정치'시대의 지배담론에 관한 일 고찰: 김영삼 정권시기 '세계화' 담론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43, 23-40.
- [Kim, Y. C. (1999). A study on the ruling discourse in the new era of 'growth politics': Focusing on 'globalization' discourse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rends and prospects*, 43, 23-40.]
- 김정준 (2016). 이슬람 테러리즘과 한국교회 영성교육의 방향: IS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8, 244-245.
- [Kim, J. J. (2016). Islamic Terrorism and Some Directions of Spiritual Education for Korean Church: Focus on IS Terrorism.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48, 244-245.]
- 김효숙 (2013). 디지털 문화 역량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발. **기독교교육논총**, 36, 405-408.
- [Kim, H. S. (2013). Developing Media Literacy as Digital Cultural Competen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36, 405-408.]
- 김효진 (2008).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사설 비교 연구 : 20년간 사설의 의제와 프레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im, H. J. (2008). A Comparative Research on Editorials in Hankyoreh Newspaper and Chosun Ilbo : Focused on the Agenda and Frames for the Past 20 Year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master's thesis*.]
- 박상진 (2011).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의 미래 전망과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27, 44-46.

[Park, S. J. (2011). The Prospect and Task of KSCRE in the Futur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27, 44-46.]

박진규 (2008). 미디어의 종교담론 생산과 그 정당화: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  
의 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6), 110-148.

[Park, J. K. (2008). Justifying the Media's Production of Religious Discourse -  
A Case Study of TV Documentary God's Way, Man's Wa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22(6),  
110-148.]

박진규 (2009). 미디어, 종교, 그리고 문화: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점 연구를 위한 새  
로운 접근방법. **한국언론학보**, 53(6), 310-327.

[Park, J. K. (2009). Media, Religion, and Culture :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n the Intersections between Media and Relig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3(6), 310-327.]

박진규 (2010). 저널리즘이 생산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 담론: 일간신문의 종교면 분  
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가을철정기학술대회자료집, 153-155.

[Park, J. K. (2010). Discourse on the social role of religion produced by journalism: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religious aspect of daily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Fall Regular  
Conference Materials, 153-155.]

변동현·박흥수·김영기 (2000). 한국전쟁 말기 휴전협정에 대한 한미신문의 사실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4호, 182-210.

[Byun, D. H. et al. (2000). An editorial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American  
newspaper on the armistice agreement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No. 14,  
182-210.]

옥성삼 (2013.10). 일간지 담론분석을 통해 본 한국개신교. **소망신학포럼**.

[Ok, S. S. (2013). Protestantism in Korea seen through discourse analysis of

daily newspapers. *Hope Theology Forum*.]

육성삼 등 (2017). **디지털시대의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한들출판사.

[Ok, S. S. et al. (2017). *Church and communication in the digital age*. Seoul: Handel Publishing House.]

육성삼 (2019, 7.12). 포스트 프로테스탄트를 전망하며. **가스펠투데이**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5>.

[Ok, S. S. (2019, 7.12). Prospecting post-protestants. *Gospel Today*.]

육성삼 (2021, 5. 4.). 뉴노멀과 개혁교회 정체성. **가스펠투데이**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3>

[Ok, S. S. (2021, 5. 4.). The New Normal and Reformed Church Identity. *Gospel Today*.]

이선영 (2011). 미디어의 종교보도를 위한 제언: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을 통해서. **한국콘텐츠학회**, 11(12), 658-673.

이성희 등 (2017). **디지털시대의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한들출판사.

[Lee, S. H. et al. (2017). *Church and communication in the digital age*. Seoul: Handel Publishing House.]

이원규 (1993). **해방 후 한국인의 종교의식구조 변천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61-232.

[Lee, W. K. (1993). *A Study on Changes in the Structure of Religious Consciousness of Koreans after Liberation*, Seoul: Korean Spiritu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161-232.]

이학준 (2011).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Lee, H. J. (2011). *The Korean Church must change its paradigm to live*, Seoul: Holywaveplus Press.]

이현주 (2021). 일간신문의 종교 보도 현황과 선교적 대응과제. **복음과 선교**, 56, 197-238.

[Lee, H. J. (2021).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Religious Reporting in Daily Newspapers and Missionary Response Tasks. *Korea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56, 197-238.]

장흥근 (2001). 여론매체에 비친 종교문화: 1990년대 주요 일간지의 종교 관련 신문 기사분석. **종교문화연구**, 3, 109-136.

[Jang, H. K. (2001). Religious culture reflected in public opinion media: An analysis of religious-related newspaper articles in major daily newspapers in the 1990s, *Religious Culture Reflected by Mass Media*, 3, 109-136.]

정재철 (2002). 한국언론과 이념 담론.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314~348.

[Jung, J. C. (2002). Korean Press and Discourse of Ideolog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46, No. 4, 314~348.]

정효선 (2010). 국내 일간지의 종교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Jung, H. S.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porting the religious issues by domestic newspapers: focused on the Dong-a Ilbo, the Hankyoreh, and the Kukmin Ilbo. *School of Journalism and Information, Hanyang University graduate master's thesis*.]

조미영 (2020). 평화역량을 강화하는 기독교 평화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3, 377-407.

[Cho, M. Y. (2020). Christian Peace Education to strengthen Peace Capabiliti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3, 377-407.]

차배근 (1995).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세명사.

[Cha, B. K. (1995).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Seoul: Semyung Press.]

채영택·최의출 (2012). 신문 사설의 보도 프레임 분석을 통한 1970년대 새마을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6권 1호, 247-270.

[Chae, Y. T. & Choi, O. C. (2012). A Study on the Saemaul Undong in the 1970s through the News Frame Analysis of the Newspaper Editorials,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16, no. 1, 247-270.]

최석호 (2003). 세계화와 여가의 사회적 의미: 2002 한·일 월드컵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6(4), 27-42.

- [Choi, S. H. (2003). The Meaning of Leisure Practice in Globalization Era: An Investigation of 2002 Korea-Japan World Cup,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6(4), 27-42.]
- 최석호 (2005). **한국사회와 한국여가**. 서울: 한국학술정보. 37-39.
- [Choi, S. H. (2005). *Korean society and Korean leisure*. Seoul: Korea Academic Information, 37-39.]
- 최석호·김보영·민웅기 (2009). **장기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원.
- [Choi, S. H. et al. (2009). A research study for establishing long-term development polic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황우선·김성해 (2015).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본 언론의 규범적 가치와 실제: 아프간 선교단체피랍사건 보도에 나타난 편향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6(1).
- [Hwang, W. S. & Kim, S. H. (2015). Journalistic ideals and reality in terms of fairness: The case study about media coverage over "kidnapped Afghanistan missionary group",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46(1).]
- 허윤철·박홍원(2010). 한국언론과 세계화 담론: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계화 보도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10(4), 562-602.
- [Heo, Y. C. & Park, H. W. (2010). Construction of Globalization Discourse in the Korean Press : A Comparison of News Coverage by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0(4), 562-602.]
- Beger, P.(1999).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A global overview. In Berger, P.(Ed.),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Essays on the resurgence of religion in world polictics* (pp.1-9). Washington D.C.: 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 Bernard, Berelson.(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Y: The Free Press of Glencoe. p 18. 차배근(1990), 재인용, p375

- Giddens, Anthony.(1990). *The Consequence of Moderninty*, Polity Press, London:  
1-54, 55-79, 174-178
- Giddens, Anthony.(1999). *Runaway World-How Globalization is Reshaping Our  
Lives*, Polity Press, London : 6-19, 36-50
- Gitlin, T.(1980). *The whole wor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over,S. M., & Lundby, K.(1997). *Rethinking media, religion, and culture*.  
Thousand Oaks, CA: Sage
- Robertson, Roland.(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Sage: 164-181
- Tucker, Kenneth. (1999). **앤서니 기든스와 현대사회이론**(*Anthony Giddens and  
Modern Social Theory*). 김용규·박형신 역. 서울: 일신사. (원저 1998년 출판).
- [Tucker, Kenneth.(1999). *Anthony Giddens and Modern Social Theory*. (Kim, Y.  
K. & Park, H. S. Trans.). Seoul: Ilsi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0)]
- Tuchman, G.(1995).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박흥수 역. 서울: 나  
남. (원저 1978 출판)
- [Tuchman, G.(1995). *Making News: Reconstruction of Modern Society and  
Reality*. (Park, H. S. Trans.). Seoul: Nanam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8)]

**Abstract**

**A study on Korean Church based on discourse analysis of the daily news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Protestantism in the 21stCentury in Korea**

Sungsam Oak

Adjunct Professor,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religious discourse produced by the daily newspapers can be viewed as a 'social-relationship' discourse rather than a religion's 'faith-identity' discourse. As a social relationship discours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Church (Protestantism) discourse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structural changes in South Korea. The public discourse produced by the media shows a reality that has been interpreted with specific values and standards on the premise of Spatio-temporal specificity rather than the actual social reality. This research approaches the Korean Church discourses produced by the daily newspaper from a social constructionism perspective. Moreover, the globalization theory is especially highlighted due to the social structural change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purpose is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in the 21st-century Korean situation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in Korean newspapers.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Korean Church discourse produced by the daily newspapers over the past 18 years (2004-2021), it was found that various mutual conflicts between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were occurring.

《 **Keywords** 》

Globalization, Discourse analysis, Social constructionism, Daily Newspaper, Korean Church.

- 투고접수일 : 2022년 5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6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6월 29일